

2025. 02. 25.

지역 & 교육협력

Vol. 20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2024년 졸업기념

DEPARTMENT OF REGIONAL EDUCATION COOPERATION

VOLUME 20 · FEBRUARY TWENTY-FIFTH 2025



발행처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효자2동 192-1)
강원대학교 교육2호관 502호 교육연구소

E-mail ier@kangwon.ac.kr

발행인 박주병

편집 이정현, 이경옥(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4기)

편집자의 말

이번 호는 힘든 학위과정을 마치고 졸업하는 학위수여자, 그리고 1년간의 파견을 마치고 현장으로 복귀하는 4기생들을 경험과 소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학과 이름에 포함된 지역, 교육, 협력, 이 모든 단어들이 결국 '사람'으로 수렴합니다. 앞으로 협력의 동반자로서 많은 사람을 남기게 될, 새 시작을 응원합니다.

Contents



01. 교수논단

대학원은 연구자를 낳는 곳 | 신철균 교수 p.03

02. 학업을 마치며

강동원, 신민종, 김성수, 지명란, 강진주, 김은혜 p.07
(졸업생을 대표하여)

03. 복귀를 앞두고

안상태, 이정현(4기를 대표하여) p.16

04. 알쓸교사

어포던스(affordance), 넛지(nudge) p.18

05. 학과동정

논문심사 절차 마무리, 연구성과 공유회 성료, p.20
학과 2024 성과 평가회





| 대학원은 연구자를 낳는 곳

신철균

강원대 지역교육협력학과,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모두 잘 지내고 계신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연구년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Penn State)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도 춥지만 여기도 연일 영하권이고 눈도 많이 옵니다. 선생님들을 못 뵈지 6개월이 넘어 갑니다. 거짓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생각도 하곤 합니다^^. 겨울방학은 어떻게 보내는지, 학교 복귀 준비는 잘 하고 있는지, 논문은 잘 마무리하고 제출했는지 등등요.

논문지도 경험이나 연구 활성화를 위한 원고를 써달라고 요청을 받아, 그에 대해 좀 써보고자 합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하고 연구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문작성을 위한 단기적 팁입니다.

첫째, 루틴 만들기 - '곰국 끓이기'

논문은 '곰국 끓이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결국 하루아침에 논문이 완성되는게 아니라 많은 노력과 자료가 지속적으로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논문을 쓰기 위한 시간을 따로 할당하고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목'요일 오전은 학교 '도'서관으로 출근하는 '목도일'을 정해 도서관에서 논문 관련 문헌 탐색과 글쓰기를 하는 시간을 일관되게 갖는 겁니다. 저는 대학원 때 제 딸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대학원에 와야 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는 대학원 연구실에 도착하려고 노력했고, 점심식사 전 2시간을 'Prime Time'으로 정하고 그 시간만큼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연구논문에만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잘 지키지 못했던 날도 있었지만, 그 시간이 누적되어 논문을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루틴을 정해 연구시간을 만들어 내고 곰국 끓이듯이 오래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 진국이 나옵니다. 그게 논문입니다.

둘째, 동료와 함께하기 - '스터디팀과 연구동아리 만들기'

논문은 처음 쓰는 사람에겐 낯선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려면 함께하는게 좋습니다. 동기들과, 선후배 과정생들과 스터디팀을 만들어 해나가면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트워크 이론에서 팀을 만들어 금연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면 혼자할 때 보다 훨씬 성공률이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의 힘인 것이고, 긍정적 의미의 동료 압력(peer pressure)입니다. 서로 동료들 간에 선한 압력을 넣으며 문헌 읽고 나누기, 내 논문 진척 과정 공유하기 과정을 통해 논문 진도를 조금씩 나아가면 어느샌가 내 논문의 구상이 잡히고 내용이 채워져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지역교육협력학과 대학원생들과 이 작업을 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과 대학원생들과 함께 '지역교육협력연구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연구 주제를 정해 6개월 이상의 과정을 거치며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지에 투고하는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 결과 두 편의 논문, 즉 "대학원 파견교사의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실행연구(한국교원교육연구, 2022년)",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육협력 사례연구 : 춘천시 '말겨놓는 카페'를 중심으로(지방교육경영연구, 2024년)"을 학술지에 출간하였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은 논문이지만, 이 연구동아리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많이 배우고 성장했다는 말을 듣고 느낄 때 저 역시 보람이 컸습니다. 이런 작업은 결국 동료와 함께하며 팀을 이루어 함께 배우고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친 값진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도 스터디팀이나 연구동아리 등 학습팀을 만들어 함께 공부해볼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질문하고 관찰하기 - '현장의 연구주제 찾기'

결국 논문을 쓰는 것은 연구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내가 궁금하게 뭔지, 내가 알고 싶은게 뭔지, 나의 문제의식이 뭔지 등의 질문을 던지며 현장 경험에 생명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대학원 수업 시간에도 '이 저자의 주장은 현실에 맞는가', '이런 이론을 현장에 적용한다면 어떤 연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머리 속으로만 말고 입밖으로 표현하는게 더 좋습니다. 교육경험이 많다고 연구질문을 모두 잘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도 습관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을 누르고 표현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 질문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이는 우수한 연구자가 되는 기본적 자질을 갖춘 것입니다.

질문뿐만 아니라 관찰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보지 않으며, 연구자의 시선으로 궁금증을 갖고, 때로는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연구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해보겠습니다. 일본 시골의 교사와 초등학생들이 50년 넘게 '히라우치 해안과 백조'의 생태 기록을 모아 국제과학 저널에 발표를 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경향신문, 2021.7.18.). 연구물 초록의 일부를 인용해보겠습니다. '1956년부터 2010년까지 50년 넘게 초등학생들이 백조들의 도착일과 출발일, 이동하는 백조들의 일일 최대 개체수를 기록...온도 변화나 조류 인플루엔자의

영향과 같은 환경 요인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였다는 내용입니다(M. Ogata, T. Mitsuya, Y. Tanaka, 2021). 이 논문은 학교 실습과 논문 출판의 연계 모델이자, 학교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역대학원의 좋은 협력 모델입니다. 이런 연구 활동은 곧 내가 근무하는 학교, 교실 등 일터에서 있는 많은 현상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질문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학원에서 논문주제를 정할 때 내가 겪고 관찰한 것을 다시금 떠올리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졸업하고 현장에 다시 돌아가 여러분이 '현장연구자'로서 활동할 때도 계속 갖췄으면 하는 태도입니다. 계속 질문하고 관찰합니다.

Data in Brief 35 (2021) 106825

Contents lists available at ScienceDirect

Data in Brief

journal homepage: www.elsevier.com/locate/dib

Data Article

Data on swan arrival, departure, and population size on the Asadokoro tidal flat, Aomori Prefecture, Japan, from 1956 to 2010

Masaki Ogata^{a,b,1}, Takeshi Mitsuya^b, Yoshiyuki Tanaka^{c,*}

^aHiranai Town Board of Education, Shimotsuki 12-1, Kominato, Hiranai, Aomori 039-3321, Japan
^bHiranai Society for Swan Protection, Shimotsuki 12-1, Kominato, Hiranai, Aomori 039-3321, Japan
^cDepartment of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 Hachinohe Institute of Technology, Ohiraki 88-1 Myo, Hachinohe, Aomori 031-8501, Japan

ARTICLE INFO

Article history:
 Received 12 November 2020
 Revised 28 January 2021
 Accepted 29 January 2021
 Available online 2 February 2021

KEYWORDS:
 Citizen
 Cygnus cygnus
 Migratory bird
 Population record
 Bird watching
 Elementary school student
 Long term

ABSTRACT

The arrival and departure dates and the daily maximum populations of migrating swans (*Cygnus cygnus*) on the Asadokoro tidal flat, Hiranai town, Aomori Prefecture, Japan, were record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more than 50 years between 1956 and 2010. The Asadokoro tidal flat, which lies along the coast of Mutsu Bay, has been designated a National Special Natural Monument, known as "The swans of Kominato and their migration grounds." This long history of observation unfortunately came to an end with the closure of the elementary school in 2012. If analyzed together with data on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emperature changes or the effects of avian influenza, this dataset could provide a potentially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and consequently, future secondary use of the data is anticipated.

출처: M. Ogata, T. Mitsuya, Y. Tanaka.(2021).
Data in Brief, 35.



대학원에서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단기적 팁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연구자가 되기 위한 팁, 혹은 마음가짐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학원은 논문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 연구자를 낳는 곳'

위에서 계속 논문을 쓰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대학원은 논문을 남기는 곳이 아니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이러니하기는 하지만, 대학원은 논문이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논문이라는 결과물을 남기기 위해 애쓰지만 사실 한 권, 한 편의 논문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자 단계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객주' 드라마에 나온 '장사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란 말을 조금 변형한 겁니다. 대학원의 코스워크와 논문쓰기 작업을 통해 대학원생은 연구자로 변해 갑니다.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거쳐 혼자서도 연구할 수 있는 '독립 연구자'로 성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학원을 다니며 논문 쓰는 고통을 겪겠지만, 대학원을 논문을 위한 과정으로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학원은 교사, 장학사, 공무원, 회사원이었던 내가 '연구'라는 또 다른 과업과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하고 성장하는 발판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과업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잠재된 능력을 발현시키고 새로운 역량을 습득한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교육협력학과는 내실있는 커리큘럼과 교수님들의 연구지도를 통해 여러분의 성장과 전환을 도우며, 지역의 훌륭한 교육연구자를 낳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둘째, '대학원과 논문 쓰기는 하나의 과정일 뿐, 인생은 계속된다'

지난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우리나라 선수 중 한 명은 누구인가요? 여러 선수가 있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은 선수는 단연 사격의 김예지 선수입니다. 김예지 선수는 10m 권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고, 특유의 무심한 사격 자세와 표정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더 반전으로 끝났습니다. 주 종목인 25m 권총 본선에서 금메달을 딸 것으로 모두가 기대했는데, 김예지 선수는 본선 탈락을 했습니다. 사격 시간 3초를 넘겨 0점을 기록하는 바람에 본선 27위로 결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 김예지 선수에게 언론들이 앞다투어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역시 세계적 선수는 남달랐습니다.

“한 발을 놓쳤다고 울지는 않았다. 인생은 계속되고 이긴 하나의 대회일 뿐”이라며 “사격은 내게 의미 있는 일이지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슬프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서 4년 뒤에는 더 좋은 결과를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 사격 김예지 선수 인터뷰(국민일보, 2024.8.3.) -

이후 많은 언론들이 '0점은 실망스럽지만...인생은 계속돼'라는 헤드라인을 내걸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지 짐작하셨나요?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을 쓰는 과정이 어땠는지요, 본인이 쓴 논문이 만족스러웠나요? 논문을 제 시간에 완성하지 못해 늦어져 본인을 자책하지는 않았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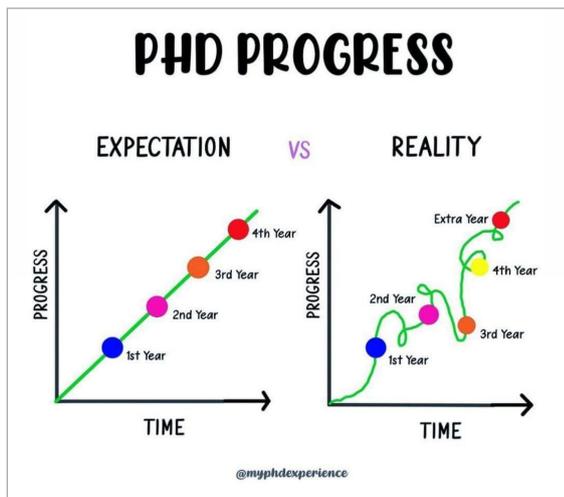
저 역시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중등교사 생활을 4년 거치며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했습니다. 한 과목 당 읽어야 하는 교재 양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도 영어 원서를 읽어야 해서 깊게 읽지 못하고 훑어보는 데 급급했습니다. 또한 통계도



모르는 것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갓 졸업하고 입학한 젊은 친구들은 어찌나 영어도, 통계도 잘하는지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렇게 석사과정 2년, 박사과정 4년을 겪으며 지금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아래의 그림과 유사합니다. 목표를 향해 일직선적으로 가게될 것 같지만, 상승 보다는 침체, 정체, 좌절의 과정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과정 중엔 '과연 졸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컸습니다. '딸도 돌이나 키우고 있는 집안의 가장인데, 수입도 없이 지금 잘 하고 있는건가', '차라리 장학사 시험으로 승진의 길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나', '박사학위 취득 후 교사를 그만두고 직업 연구자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질문들을 매번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 마다 '잘 될거야', '일단 논문 먼저 쓰고 생각하자' 등 여러 말로 저를 다독거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 때 생각하면 아직도 애잔합니다.^^

김예지 선수가 말한 것처럼 지금 조금 부족하고 실수하더라도, 지금 한 번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원에서 논문쓰는 경험을 밀천 삼아 앞으로 해나갈 더 큰 일에 자극이 되고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것으로 대학원의 논문쓰는 과정은 짧지만 충분히 의미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myphdexperience

이제 글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얘기 했지만, 대학원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고 연구자를 낳는 곳입니다. 지역교육협력학과는 지역의 교육 연구자를 성장시키고 배출하는 지역교육연구의 메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과정이 병 뚫린 고속 도로처럼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태주 시인의 <먼 길> 시처럼, 저를 비롯한 지역 교육협력학과의 교수들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가자 먼 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나태주, <먼 길>



| 연구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

강 동 원

지역교육협력학과 박사과정 1기·양구 원당초등학교 교사

2021년 봄, 지역교육협력학과 개강총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시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는지 짧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소중한 이야기가 추억으로 그치지 않고, 연구로 남아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는 데에 힘을 보태고 싶다’는 소박하지만 어려운 목표를 말했습니다. 박사 논문을 작성하고 졸업을 앞둔 지금, 이 목표를 달성했다고는 당당히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연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목표를 계속 마음에 담고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 4년간 지역교육협력학과 1기 박사과정생으로 많은 선생님들의 연구과정을 지켜보고 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은 팁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관련 학회에 적극 참석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시작할 때,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뚜렷한 주제가 없거나, 뚜렷한 주제가 있더라도 타인이 보기에는 연구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연구의 돌파구이자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 학회입니다. 학회에 참석하면 최근의 연구 동향, 저명한 학자의 발제, 토론 등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연구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는 학회(예:한국교육학회)에 참석하기를 권합니다.

둘째, 연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찰입니다. 성찰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의 마음을 반성하고 살핌’인데, 연구에서 성찰은 연구문제, 연구목적, 연구현장, 마음, 어투, 자료정리 습관 등을 모두 깊이 있게 돌아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과정이 어려웠고 아직도 잘 되지 않지만 자꾸 자신의 논문을 성찰하려고 하다 보면 논문이 완성되어 갑니다. 성찰의 좋은 방법은 훌륭한 논문을 하나 선정해서 이 논문과 자신의 논문을 비교해 보는 습관을 정착하는 것과 내 논문은 남이 읽기에 쉽고 핵심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제3자 입장에서 논문을 바라볼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는 글쓰기에 관련된 것인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썼다가 지우기’입니다. 대학원에 입학한 후 저와 동기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 했던 것이 글쓰기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든 삶이든 글 쓸 기회가 적었기에 글쓰기는 당연히 부담스럽고 힘든 작업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때,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혼자 보고 나서 지운다는 생각으로 또는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한 쪽짜리 글쓰기를 자주 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런 뒤에 이 정도면 누구를 보여주어도 되겠다 싶을 때, 동기들이나 지도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코멘트를 받으면 그때 많이 성장하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일단 글을 써보셔야 합니다.

4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돌아보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지도해주시는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동기들이 있었기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짊어지지 말고 어려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학회도 참석하고 서로의 논문도 읽어보고 함께 글을 쓰다 보면 어느새 연구자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벌써 4년, 지역교육협력학과를 떠나며

신민종

지역교육협력학과 석·박사통합과정

2020년 9월 전국 최초로 지역교육협력학과가 설립되고, 2021년 3월 첫 석·박사통합과정의 신입생으로 입학한 날이 었그제 같은데, 어느새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 지역교육협력학과 첫 석·박사통합과정 졸업생으로서 학업 수기를 작성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의 지난 4년은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자로 성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님들의 모든 수업이 유익했지만, 그 중에서도 1학년 첫 학기에 수강한 '지역 사회교육문제론'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첫 시간에 '내가 기여하고 싶은 지역사회 교육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이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통계 자료와 관련 선행 연구, 이론을 찾아보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는 것이 최종 과제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과제를 제출했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 투박하고, 어설플기 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연구 과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웠습니다. 되돌아보니 이 수업은 저에게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지역교육협력학과 학생으로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석사, 박사 과정 학우분들과 함께한 연구동아리 활동은 지역교육협력학과가 강조하는 협력의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매주 논문을 리뷰하고, 연구방법론을 공부하는 것이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획했던 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지역교육협력 사례 연구: 춘천시 '말겨 놓은 카페'를 중심으로(지방교육경영연구, 2024)"를 투고하기 위해 지역 주민을 인터뷰하고 글을 쓰고 다듬으며 교수님, 선생님들과 회의했던 수많은 밤은 '함께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학우분들과 함께 수료 학점을 이수하던 시기를 지나 학위 논문을 작성하던 시기는 저 자신과 외로운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도망치고 싶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주말을 기다리던 제가, 일요일마다 교수님께 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주말이 오지 않기를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많이 바쁘신 와중에도 부족한 제 논문을 읽어주시고, 더 나은 논문이 될 수 있도록 피드백해 주셨던 남수경 교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논문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논문 심사 과정을 함께한 강동원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졸업이 무기한 연기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여곡절 끝에 박사 학위 논문을 제출하고, 졸업을 앞둔 현재의 심정은 해방감보다는 더 큰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이 부담감은 제 스스로 아직 부족한 연구자라는 것과 더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위 논문을 합격으로 판정해 주신 교수님들의 결정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지역 연구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구에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연구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과정을 함께한 석사, 박사 과정 학우분들, 학과의 발전을 위해 힘 써주시고, 유익한 수업을 해주신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지역교육협력과를 기억하며, 다시 지역으로!

김 성 수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3기·영월교육지원청 장학사

1. Why? 왜 지원을 했을까

저는 정선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10년간 지역 주민이자 교사로 지내며,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나의 자녀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터전인 정선의 교육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리에서 정선 교육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2017년 지역퀴터제 교육전문직원 선발에 응시하였고, '강원도교육청 최초의 마을장학사'가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게 따라붙는 '최초의 마을장학사'라는 타이틀은 부담감으로 다가오기도 했지만, 새로운 교육활동과 사업 추진 등을 이끌어내는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쉽 없이 달려온 5년의 시간 동안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사 뿐만 아니라 지자체, 유관기관 등 우리 지역 곳곳의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는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갔으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교육 현장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최초의 마을장학사로 보낸 5년의 시간을 마치고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느라 마을에 지역에 대한 고민도 잊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역교육협력학과 특별연수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마을과 지역에 대해 그 동안 배우고 익혔던 생각에 대한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2. What? 무엇을 했나

대학원 생활은 제게 많은 성장을 가져다 준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마을과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배움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낯선 도전들이 펼쳐지는 대학원 생활은 예상과는 달리 쉽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수업을 들으며, 그 동안 해 왔던 마을과 지역에 대한 고민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로운 개념과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협력학과의 수업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을 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보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도와주었는데, 더나은교육지구 컨설팅 참여를 통해 강원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더나은교육지구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으며, 교육발전특구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기반 형성 등 우리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 문화와 학생 및 학교의 필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교사의 업무 경감 및 지역 자원의 연계와 활용, 지역사회와의 협력에서 교육지원청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 진행한 저의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의 역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지역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찾도록 하였습니다.

3. Who?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은 누구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수업을 통해 이론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를 통해 마을과 지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나 목표를 설정할 때마다 교수님들께서 해 주셨던 조언은 늘 현실적이면서도 격려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의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의 연구와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학원 생활을 먼저 겪은 선배들의 연구를 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 분들의 노력을 통해 목표를 정하게 되었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격려로 응원하고 함께 한 선배님들이 계셔서 더욱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원 동기들과의 만남은 가장 특별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교육협력학과가 아니라면 경험할 수 없었을 귀중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던 그 시간들은 그 무엇보다도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인연으로 '우리'가 된 동기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지난 2년 더욱 행복했습니다.

4. When? 대학원 생활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학교 생활은 예전 대학 시절로 돌아가는 착각이 일어날 정도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특히, 3기 과대표가 되어 워크숍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과 교수님들 간의 교류를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워크숍을 준비하고 운영함에 있어, 교수님을 비롯한 지역교육협력학과 식구들, 그리고 준비와 운영을 함께 도와준 동기분들이 계셨기에 함께 했던 1박 2일이 더욱 특별했습니다.

또, 학과의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스스로의 학문적인 성장을 넘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단단히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만나 지역과 학교가 함께 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격려했던 경험은 내 자신이 앞으로 장학사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지역교육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5. Where?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

대학원을 마치며, 결국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다시 마을이라는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애정을 쏟아온 정선 지역의 사례들, 그리고 대학원에서의 배움을 통해 삶의 터전인 마을과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로, 지역교육의 중심에서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서로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가진 역할이라고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에서의 배움과 연구를 통해,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제가 머물고 있는 지역에서 다시금 뿌리내려, 새로운 시각과 전문성을 더해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교육이 지역을 바탕으로 더욱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 공직에서 대학원까지 : 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와 성장

지명란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3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주무관

1. 왜 대학원을 진학했는가?

저는 2004년도에 공직 생활을 시작하며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교육 행·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앞에서 안정적인 사무 처리에 만족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의적 사고력과 합리적 판단력을 갖추기 위해 더 깊은 학문적 탐구가 필요하다고 느껴, 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의 특별연수 과정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봄, 강원대학교 스마트 교실에서 첫 연수 과정을 시작하며, 저는 기대감보다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될 후배들에게도 찾아올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연구 분야 및 앞으로의 계획은?

제 연구 주제는 '성인지 예산사업의 집행 효과에 관한 연구; 강원지역 초등돌봄사업을 중심으로'로, 이는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했습니다. 재정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업무를 직접 맡았던 배경이 이 주제를 선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이 분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파악하고자 했으며, 동시에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경험 또한 초등돌봄 사업에 관한 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심을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연구 주제와 방법에 관한 결정이 다소 늦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학원에 입학할 때 연구 주제를 미리 정했다면 필요한 과목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이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더욱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며 학위 과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정책 분석과 설문조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2년이라는 긴 연수 과정 동안 받은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제가 필요한 곳에서 지식을 나누고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 지역교육협력학과에서 학업 하신 소감은?

1년 차의 전일제 집중교육 기간은 최대한 많은 수업을 이수해야 했기 때문에, 학기마다 네 과목씩 수강했습니다. 첫 학기는 학교 적응과 수업 준비에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읽어야 할 자료가 많고, 토론과 발표가 중심이 되는 수업이 많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여름방학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사업인 '더 나은 교육지구'에 대한 컨설팅과 교수님의 통계분석 특강도 참여했습니다. 이 경험은 내가 속한 조직의 정책을 도민이나 연구자의

시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였습니다.

2학기는 1학기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개강과 동시에 석사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인 논자 시를 준비해야 했고, 선배들의 조언 덕분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3학기는 가장 힘들고 고된 시기였습니다. 업무와 졸업 준비라는 두 가지 큰 부담을 동시에 안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때때로 외로웠습니다. 이 시기에 학위 과정의 히로애락을 함께 나눈 동기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신 교수님들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학원 생활 중 어려울 때마다 ‘한계란 한 게 없는 사람의 핑계다’라고 되뇌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이 없어서’, ‘아이를 키우느라’, ‘몸이 아파서’ 등 여러 핑계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피했던 것 같습니다. 주말 새벽, 잠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도서관으로 향해 졸업 논문 계획을 마무리했던 날, 도서관 앞에서 비눗방울을 불며 저를 기다리던 가족의 모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부하러 가지 말라고 하던 아이도 도서관에 호기심을 보이며, 졸업을 앞둔 지금, 가족 모두가 ‘어제보다 나아진 나’를 목표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공직에서 일하다가 오랜만에 학생의 삶으로 돌아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인생에서 다시 얻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일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날들을 더욱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용기와 자극을 주신 남수경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과 3기 동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에서 시간을 배려해 준 교육청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직자로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배움과 성장의 시간, 대학원 생활을 마치며

강진주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3기·설악고등학교 교사

다시는 경험하지 못할 꿈 같은 1년간의 파견 생활을 뒤로 하고, 복직 후 졸업 논문을 준비하며 내내 마음 졸였던 또 다른 1년도 어느새 훌쩍 지나갔습니다. 졸업이라는 문턱에 서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모든 순간이 새삼스럽게 감사하고, 지나보내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원에 지원하지 않았다면 결코 만나지 못했을 교수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평생 접해볼 기회가 없었을 수많은 논문들과 서적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늘 제 안의 에너지를 소진하기에만 급급했던 저에게 대학원은 새로운 인연들을 만나 전혀 다른 분야를 배우며 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학교 현장에만 갇혀 있던 제 시야를 넓힐 수 있었고, 새로운 세상에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시간도 많았습니다. 필요한 논문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조차 몰라 헤매던 날들, 연구 문제에 대한 확신과 의구심이 뒤섞여 스스로 흔들리던 순간들, 논문 작업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도 진척이 더딘 날들의 연속. 복직 후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 논문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신 교수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열정적인 지도,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 의지할 수 있었던 동기들이 있어 그 시간들 속에서 지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대학원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히 학문을 배우는 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 이전에는 몰랐던 나 자신을 새롭게 발견했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했던 교수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대학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교사로서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연구요약

- **주제** | 고교학점제에 따른 농어촌 고등학교 교사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경험(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내용** | 본 연구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농어촌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전 과목에 미이수제가 확대 적용되는 상황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이 농어촌 학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교사들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운영하며 겪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운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제도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 배우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김은혜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3기·섬강초등학교 교사

학교 야구점퍼를 입고 군데군데 모여 있는 학생들. 어쩐지 설렘과 어색함이 감도는 교정. 3월이 주는 적당한 어수선함과 낯설음이 학생으로 돌아온 것이 실감났습니다. 근 10년을 쫓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방식에 익숙해져 편안하고 안정적이지만 새로움은 점차 열려져가던 그 때 다시 학생이 된다는 것은 외려 가르침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되어보니 까마득히 잊고 있던 학생 때의 마음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가르침이 편안함을 주는지, 학생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을 누구보다 학생 본인이 가장 잘 느끼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구요.

‘그래, 수업시간에 대답을 안 한다고 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었지.’ ‘내가 정한 틀과 규칙에 어긋났다고 엄하게 할 필요 없어. 이미 아이들이 먼저 느끼고 있을 거야.’ 교사가 된 후, 마치 처음부터 교사였던 것처럼 나는 아이들을 다그치고 몰아붙이곤 했는데 그런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논문을 쓰는 여정이 쉽진 않았지만 이 시간 없이 쫓 교사로서 내달렸다면 나는 얼마나 외로운 선생님이 되어있었을까. 2년 동안의 배움이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나의 가르침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하기를 기대 해 봅니다.

논문 주제가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내용이어서 관련 자료를 찾다보니 미처 몰랐던 지역에서 주최하는 많은 문화예술 제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주문화재단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 음악교육을 해주는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료로 악기를 제공받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음악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학생들이 우선 선발되므로 학교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문화예술에 대한 기량이 있어야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데 지역의 좋은 제도와 연계해서 비용도 지원받고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들과 씨름하며 바쁘다는 핑계로 ‘일 벌리지 말고, 꼭 해야 되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하자.’라는 생각으로 지냈는데 나보다 더 많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아이들과 이것저것 실천하는 교사들을 면담하면서 많이 배웠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로 돌아갔을 때, 지역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아 동료교사들에게 많이 알리고 경험을 공유하면서 학교와 지역의 활발한 연계활동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연구요약

- 주제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경험 연구
- 내용 | 초등교사들이 지역연계교육을 하게 된 계기, 연계내용의 핵심과 연계결과를 알아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탐색하여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이 지속되기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사들이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을 하게 된 계기, 연계의 핵심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교사들이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이 지속되기 위한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 경험이 풍부하고 이를 교육현장에서 적용·실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초등교사 4명을 심층 면담하여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 첫째, 교사들이 지역과 연계한 계기는 수업의 질 향상과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는 점, 둘째, 지역연계는 주로 교사주도로 진행되었고 그 효과는 학생, 학교로부터 지역, 교사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고, 셋째, 지역연계교육의 어려움은 예산부족, 책임주체의 부재, 실무자의 과도한 업무 등 이었습니다. 넷째, 교사들이 생각하는 지역연계교육의 성과와 의의는 ‘학생의 성장’, 더불어 ‘교사의 성장’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역연계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첫째, 학교가 공정한 업무분장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 담당자를 선정하고 해당교사에게 적절한 배려와 인센티브를 제공, 둘째, 수월한 지역연계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 셋째, 지역과 연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는 교사에게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직생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제시.





| 작별하지 않는다. 2024년

안 상태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4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좀처럼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마음 한 켠에 가르치는 일의 어려움과 고단함이 밀려올 때 교사들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무심코 내뱉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격언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주변의 사람을 바꿀 수는 있다.”

그래서 작년 이 즈음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변의 사람을 바꾸는 일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의 사람이 바뀌었지만 곧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바뀌었고 지금은 눈빛과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1년을 돌아봅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던 날들이 생각납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설레임을 드러내기 힘들었던 서먹서먹한 시작이 아직도 손에 잡힐 듯 생생합니다. 열정가득한 대학원생인 우리는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도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한 해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기에 대해 각자가 연구한 이론을 바탕으로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과 교육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면 잠시 정신이 혼미해지곤 했었지요. 학교를 다니던 시절이라면 잔디밭에 막걸리를 마시러 갔겠지만 달라진 캠퍼스문화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때는 학업을 잠시 내려놓고 높은 곳에 올라 폭넓은 시야를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올 여름 세상을 떠난 김민기 선생님의 노랫말이 들려왔습니다.

“친구여, 우리가 오를 봉우리는 바로 지금 여긴지도 몰라.”

한 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어느 해보다도 한층 불투명하고 불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런지 졸업에 앞서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늘 열정적인 강의와 새로운 질문으로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고, 그 밖의 활동에 물심양면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늘 웃는 얼굴과 적극적인 태도로 귀한 시간을 내어 행사에 참여해준 우리 4기 대학원생들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과 후 우리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지역교육협력학과는 우리에게 ‘교육적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실천해야 하는 교육,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두렵지만 지역교육협력학과는 우리에게 자신감있는 목소리로 말해줍니다. “전보다 더 잘 해낼 수 있을거야.”라고. 지역교육협력학과 4기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파견은 끝났습니다.



| 지역협력교육학과에서 일년을 보내며

이정현

지역교육협력학과 석사과정 4기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어제와 오늘, 분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도 한 해의 마지막 날에는 뭔가 비감해집니다. 별수 없이, 한해를 돌아보며 이루지 못한 것과 이루고 싶었던 것들 사이의 아련함도 함께 곁에 머무는 하루입니다.

고맙게도 매년 찾아와 주는 마지막 날이지만, 올해의 마지막 날은 사뭇 다릅니다. 정치·경제적으로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엇그제에는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요한 슬픔 속에서 들뜬 연말이기보다는 다들 조용히 자신의 걸을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분위기입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초읽기를 하며.

개인적으로 올해는 참 감사한 해입니다. 대학원에 들어와서 마음 따뜻하고 배려 있는 동기들을 만나고 좋은 교수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도 제법 읽은 한 해였습니다. 물론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한 일도 많았습니다. 허나, 돌아보면 아쉽지 않은 것들 어디 한둘일까요. 하지 못한 일들은 하지 못했다고 후회하지 않고 또 다가올 해를 위해 남겨두기로 합니다.

올해는 지역교육협력학과에 입학하여 지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작은 학교에 근무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학교와 지역이 어려워 지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만 하였는데, 대학원에 들어와서 강의를 듣고 자료를 찾고 과제를 하며, 학교와 지역 사이에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했던 해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지역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던 제게 여러 사람의 책과 논문은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해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2025년이 됩니다. 곧 학교에 복귀하면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겠지만, 2024년은 제게 훌륭한 자양분이 되어 줄 것입니다. 다음 기수들이 들어오면 지역에 대한 더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여 우리 학과가 더욱 탄탄해질 뿐만 아니라, 지역과 학교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성을 지닌 인재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지역의 어려움들을 조금씩 헤쳐 나갈 수 있겠지요. 그때쯤이면 저도 지역 속에서 함께 움직이고 행동하는 작은 징검다리가 되어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인생이란 느끼는 자에게는 비극이요, 생각하는 자에게는 희극이다.’

- 라 브뤼에르(Jean de La Bruyère) -

그의 말처럼 대학원생으로 살면서 학교에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 희극의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 어포던스(행위유도성, affordance), 그리고 넛지(nudge)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는 길에 녹색과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노면 색깔 유도선”을 보았을 것이다. 이 유도선은 운전자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준다. 2011년 도로공사에서 근무하던 윤덕근 차장이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처음 도입했다. 이후 고속도로의 분기점 진출입로는 물론 교차로 등에 유도선이 그려졌고, 그러자 나들목 사고는 27%, 교차로사고는 50% 이상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이 유도선은 미술이나 산업디자인과 관련해서 어포던스(affordance)의 사례다. 이 개념은 Gibson(1979/2014)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서 “특정 대상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 요소”를 말한다. 통상 행위유도성으로 번역한다.



어포던스가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좀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탈러와 선스타인(Thaler&Sunstein, 2022)이 제안한 행동경제학의 개념인 넛지(nudge) 역시, 행위주체들의 선택을 제도나 절차, 규정에 의해서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동유럽과 중앙 유럽의 유대인들이 쓰던 이디시어로 옆구리를 팔꿈치로 슬쩍 찌른다는 뜻을 가진 넛지는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가리키며, 그리하여 “선택 설계”(choice architecture)라고도 부른다.

탈러와 선스타인이 드는 예를 몇 가지 가져와 보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선호를 잘 안다고 여기지만, 외국에 나가서 난생 처음 먹어보는 현지 음식을 놓고서는 무엇을 선택할지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때 현명한 여행객은 웨이터에게 도움을 청한다. “여기 처음 왔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식당은 대개 손님이 선택할 선택지를 최소한으로 만든다. 음식에 넣지 말아야 할 식재료가 있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주방장이 음식을 책임지고 만들어 내오는 것이다. 일본어 ‘오마카세’가 바로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 말긴다는 뜻의 오마카세는 손님이 먹을 음식을 주방장에게 일임하는 최고의 스시집 전통을 가리킨다.

쉽게 할 수 있게 만들기(make it easy) 방침은 여러 가지 실험으로 입증된다. 레벤텔, 싱어, 존스는 예일대 졸업반 학생들에게 파상풍의 위험성과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교육한 다음에 예방주사를 얼마나 실지로 맞는지 확인했다. 그러자 고작 3% 밖에 접종을 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똑같은 교육 후에, 보건소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와 주간일정 중에 언제 예방주사를 맞을지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28퍼센트가 예방주사를 맞았다. 두 집단 모두 이미 고학년이어서 보건소 위치는 다 알고 있었고, 계획을 지키라고 약속해라거나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다고 한 것도 아니었다. 마냥 선택지를 열어두지 않고 이렇게 미리 생각해보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은 투표율을 높이고자 할 때에도 쓸 수 있다. 전화로 단순히 투표하시겠습니까 하고 의향만 묻지 않고, 언제쯤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어느 투표소에 갈 계획인지 등을 추가로 더 물을 경우 투표참여는 더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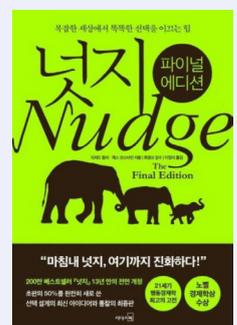
넛지는 위의 사례처럼 선택의 자유는 보장하되 더 나은 선택으로 유도하는 자유주의적 개입을 말한다. 이 개념은, 인간이 불완전하게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완벽하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직관적이고 단순한 어림짐작(heuristic)으로 결정을 하며, 가급적이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이득이 보장되어도 손실에 더 민감하며, 같은 사안도 프레이밍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이다. 물론 이 비합리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 설계를 통해서 바람직한 선택을 기본 옵션으로 만들어 더 안전하고 나은 선택으로 유도하는 전략이다.

바로 엇그제가 새해인데 벌써 한 달이 지나 새해에 세웠던 한 해 계획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매년 새해계획을 세우고도 실패하는 것은, 자제력이 필요한 일인데도, 우리가 선택을 하는 시점과 선택에 따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너무 먼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운동, 다이어트, 절약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이런 투자재는 비용은 즉시 지불하고 수익은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에 비해 드라마 몰아보기, 흡연, 음주 같은 유혹재의 경우 즐거움은 즉시, 그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나타난다. 이럴 때 크리스마스 저축 클럽은, 금리도 제로에 가깝고, 만기인 크리스마스 전에는 뺄 수 없어 유동성도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이 적금 가입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여유자금이 있으면 지름신이 오고야 마는, 자제력 부족한 자신에게서 말이다. 크리스마스에 가족들을 위해 근사한 이벤트를 열어주는 보너스까지...

러닝크루에 가입해서 매일 운동한 결과를 사진을 올리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도록 설계하는 것도, 멧때리며 후회할 짓을 자주 하는, 대부분의 자제력 부족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침(자기결박 및 손실회피 전략)이다. 에너지 사용량을 아파트 이웃 세대와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거나, 소변기에 파리 하나를 그려 넣음으로써 바깥으로 튀는 소변의 양을 80퍼센트 감소시킨다거나, 학교 계단을 예쁘게 디자인하고 음악을 틀어 줌으로써 계단을 오르는 것이 즐겁도록 하는 것, 수술 전에 점검표를 큰 소리로 불러보는 절차를 공식화함으로써 사소한 오류를 방지하는 것 등등, 넛지는 이미 우리 삶의 곳곳에 퍼져 있다.

참고문헌

- 혁신24 누리집. 정부혁신최초최고. <https://www.innovation.go.kr/ucms/bbs/B0000076/view.do?nttlid=11015&searchWrd=&menuNo=300210&searchCnd=1&pageIndex=1>
- Gibson, J.J. (2014).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Classic Edition (1st ed.). Psychology Press. <https://doi.org/10.4324/9781315740218>.
- Thaler, R., & Sunstein, C. R. (2022). 넛지: 파이널 에디션. (이경식, Trans.). 리더스북.



박 주 병 | 지역교육협력학과 교수

| 지역교육협력학과, 2024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완료

지역교육협력학과가 2024학년도 2학기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및 대체인정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심사는 연구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평가하고 공식적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서류 제출 ▲예비 심사 ▲본 심사 ▲최종 제출의 절차로 진행됐다. 연구자들은 예비심사에서 논문의 방향성과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받았으며, 본 심사에서는 연구의 학문적 기여도와 완성도를 집중적으로 평가받았다. 최종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학위 수여 여부가 결정됐다.

대학원 관계자는 “논문 심사를 준비한 연구자들이 연구 내용을 철저히 정리하고, 심사 과정에서 받은 피드백을 반영해 논문의 완성도를 높였다”며 “대체인정 심사를 신청한 학생들 또한 연구 업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위 심사는 강원대학교 지역교육협력학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을 공식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대학원 측은 “이번 심사를 통해 많은 연구자가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방법론이나 연구절차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학년도 학위수여자

- 박사과정
 - 강동원 : 학생 주도성 기반 초등교육과정 운영 실행연구 : 학습나침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석박사통합과정
 - 신민종 : 대학-지역사회 교육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 요인 연구 - A대학교 사범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중심으로 -
- 석사과정
 - 강진주 : 고교학점제에 따른 농어촌 고등학교 교사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경험 :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 김성수 :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과정 운영 현황과 역할 분석 - 정선군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 김승현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온종일 돌봄서비스 운영 사례 연구 - 화천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 김은혜 : 지역연계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초등교사의 경험 연구
 - 김한나 : 팬데믹 상황에서 시골 초등학교의 학생 참여 양상 사례 분석
 - 박은주 : 초등 사회과 지역화 교재 개발 과정 연구 : ‘살기 좋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 이관용 : 태백 더 나은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차이 분석 연구
 - 이은철 :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가치 증대 방안 연구

- 이진수 : 더 나은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 분석
- 지명란 : 성인지 예산사업의 집행효과에 관한 연구 - 강원지역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
- 최상철 : 태백 지역 생활권에 따른 구성원들의 더 나은교육지구 사업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 최수진 : 청소년의 정책참여활동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 C시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중심으로 -
- 최종태 : 강원특별자치도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과 개선방안
- 한규희 : 화천 더 나은교육지구 지구중점공동사업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 분석

지역교육협력학과, '동계 연구성과 공유 워크숍' 성료

- 연구성과 공유회 및 졸업생·복귀원생 송별회 -



지역교육협력학과는 1월 22일 춘천 더클래식에서 '동계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년간의 학문적 노력을 마친 3기 대학원생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4기 재학생들을 격려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3기 대학원생들 논문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동안의 학문적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워크숍을 통해 각자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서로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3기 대학원생 14명이 한 명도 빠짐없이 과제를 완수한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이들의 노력에 대한 축하의 말이 이어졌다. 또한, 전일제 대학원 생활을 마친 4기 재학생들에게는 학문적 여정의 지속을 응원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교육협력학과 최초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민중, 강동원 대학원생의 졸업도 기념됐다. 지도 교수들은 졸업생들의 이름과 논문 주제를 소개하며 그들의 연구 성과를 축하했다.

3기와 4기 대학원생들은 워크숍을 통해 연구성과를 나누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덕담을 나누며 학문적 우정을 더욱 돈독히 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교육협력학과가 지역사회의 교육적 요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학문적 성취와 지역 교육 혁신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동계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워크숍’

| 지역교육협력학과, 2024 성과평가회 개최

교육연구소와 지역교육협력학과는 2월 11일, KT&G 상상마당에서 한해 각종 활동을 평가하는 성과평가회를 가졌다. 이 평가회에서 지역교육협력학과는 지난 한해 학과 운영, 학위논문지도, Supervision for Gangwon 등의 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발전방향, 2025년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방안, 웹진 지역&교육협력의 발간과 홈페이지 개편 방향 등, 학과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제안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교육협력학과의 교강사진, 그리고 대학원생 등이 참여하여 활발하게 견해를 나누었다.

